자메이카 음악에 대한 연구

고경미, 조태선*
청운대학교 대학원, *청운대학교 뮤직트레이너학과
e-mail: baso2015@naver.com
*entheos@chungwoon.ac.kr

A Study of Jamaica Music

Kyung-Mi Koh, Tae-seon Cho*
Graduate School of Chungwoon University
*Dept,of Music Trainer, Chungwo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자메이카 대중음악은 스카를 시작으로 락스테디, 레게, 덥, 댄스홀의 흐름으로 발전하여 왔음을 알아보고, 리듬적, 화성적, 선율적으로 분류함에 있어서 선율적 특징을 알아보고 특히 리듬적 특징을 각 장르마다 분석하고자 한다. 각 장르의 탄생 배경과 한국 대중음악 발전에 어떠한 영향를 미쳤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자메이카 음악이 한국 대중음악 발전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자메이카 음악에 대한 국내 학술 자료 및 연구는 극히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자메이카 음악의 리듬적 특징을 분석하여 자메이카 음악이 한국 대중음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또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세계음악시장에서 한국 대중음악이 나아가야 할 방법론적 과제를 제시해 보았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음악적 장르와 자메이카의 음악적 장르가 결합되어 세계적인 대중음악으로써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한다

1. 서 론

전 세계 음악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친 자메이카 음악은 1950년대 후반 시작된 스카를 기점으로 하여 락스테디, 레게, 덥, 댄스홀로 점차 발전하였다. 1960년대 후반 락스테디와 레게음악은 영국의 대중음악에 큰 영향력을 주었다. 밥 말리를 중심으로 한 레게음악과 문화는 영국과 다른 유럽 국가들을 포함하여 호주 ,일본, 남아메리카와 미국 등 전 세계 대중음악 시장에서 성공한 장르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덥과 댄스홀은 유럽의 전자 음악과 미국의 힙합음악의 탄생에 큰 기여를 하였다.(Vincent, 2008)

한국의 경우 1980년대에 레게음악이 본격적으로 대중음악 시장에 소개 되었고, 1990년대에 김 건모의 “핑계‘ 라는 곡으로 레게음악이라는 장르를 한국 대중들에게 선보이며 강한 인상을 남기고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다. 특히 댄스홀의 영향을 받은 힙합 음악은 한국 젊은 세대의 자유분방함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음악으로 자리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자메이카 음악이 한국 대중음악에서의 영향력이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학술 자료 및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이러한 배경으로 하여 자메이카 음악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다.

자메이카 음악은 각각 음악적으로 크고 작은 차이가 있으며, 하나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내용이 방대하여 무리가 따른다. 같은 장르에서도 연주자의 성향이나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 얼마든지 다른 연주가 가능하다. 하지만 분명 기존의 음악과는 다른 자메이카 음악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각 지역의 음악과 융합하여 새로운 음악장르의 탄생에 큰 기여를 하였다. 스카로부터 발전한 락스테디, 레게 ,댄스홀 등의 여러 장르들을 화성적, 리듬적, 선율적으로 분류함에 있어서 특히 리듬적 특징과 선율적 특징을 분석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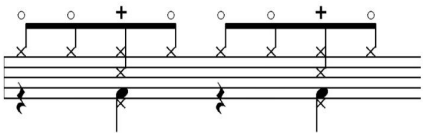
2. 본 론

2.1 스카의 리듬적 특징

자메이카 음악에서는 드럼과 베이스가 독창적이다. 일반적으로 8bit 음악에서 드럼의 킥은 보통 1,3박자에 사용되는데 자메이카 스카에서는 2,4박자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Allmusic, 2007), 스네어의 경우도 2,4박자에 악센트를 주며 림샷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라틴 음악의 영향으로 필인에서(Fill-in)에서 팀발레스를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악보1]은 스카리듬의 기본적 형태이다.오프 하이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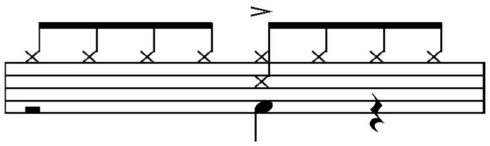
과 클로즈 하이햇으로 2,4박에서의 악센트를 표현하며 킥 드럼 또한 2,4박에 위치한다. 곡의 분위기에따라 스네어 혹은 림샷을 활용하며 다른 자메이카 음악에 비해 비교적 빠른 템포이다. 하이햇의 박자를 16bit로 분할하여 활용이 가능하며 심벌과 스네어를 사용한 악센트를 4&의 엇박자에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초기 스카의 경우 베이스라인이 스윙재즈의 워킹 베이스라인과 유사하다.



[악보1] 스카 리듬

2.2 락스테디의 리듬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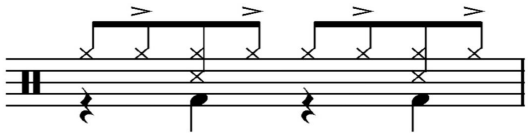
락스테디의 기본적 형태로 4/4박자에서 3박에 악센트를 주는 스네어와 킥 드럼이 특징적이다. 이를 원드롭(One Drop)이라고 하며 킥 드럼을 첫 번째 박자에 연주하는 R&B나 록 드럼 스타일과는 현저히 다르다. 기존 스카에서 보다 템포가 많이 느려졌고 스카에서 레게로 가는 과도기적 성격이 강함며 레게의 탄생에 큰 영향을 주었다. 락스테디의 느린 템포와 소규모 밴드 인원은 자연스레 베이스라인에 중점을 두게 되었고 기타는 종종 베이스라인과 같은 라인을 가기도 했다. 기타리스트 린테이트에 의해 뮤트피킹 주법이 탄생하였고 이 기술은 레게로 이어졌다.(BBC, 2011)



[악보2]　락스테디 리듬

2.3 레게의 리듬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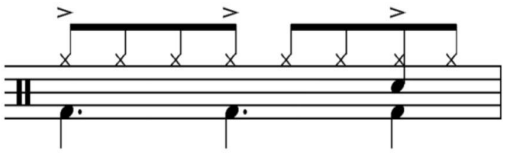
레게 리듬의 기본 형태로 2,4에 악센트를 주는 것이 특징이다. 하이햇의 경우 오프비트에 악센트를 주어 특유의 그루브를 살린다. 락스테디보다도 템포가 느려졌으며 레게의 경우는 록음악에서의 기타 리프와 같이 하난의 리프 형태로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 피아노 연주자는 오르간이나 전자 피아노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대위법을 사용하여 부차적인 멜로디라인을 만들 수 있었다. 기타의 경우 기존의 2,4의 박자에 다운 피킹과 고스트노트인 업피킹을 추가하기도 하였으며 피아노의 경우에도 리듬적으로 더욱 다양한 패턴을 사용할수 있었다. 템포가 느려지자 하이햇은 좀 더 자유로운 리듬을 사용 할수 있었다.



[악보3] 레게 리듬

2.4 댄스홀의 리듬적 특징

댄스홀 리듬은 마지막 박인 4박에 강세가 오는 것이 특징이다. 템포가 매우 빨라졌으며 16비트 기반의 연주를 활용한다. 전자 악기를 사용하는 곡이 많고 드럼의 패턴 또한 실제 연주가 아닌 미디드럼 르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3-3-2의 리듬 패턴이 기본적인데 1,2&,4에 하이햇과 킥 드럼의 악센트가 들어 간다.악기의 구성이 크게 변화하여 기타와 피아노가 2,4에 리듬을 연주하지 않고 3-3-2 리듬의 첫 박에 연주한다. 신디사이저와 같은 전자 악기의 사용이 확대되었으며 드럼과 베이스가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악보4] 댄스홀 리듬

2.5 선율적 특징

2.5.1 토스팅(Toasting)

토스팅은 모노톤의 멜로디로 자메이카 음악의 리듬이나 비트에 맞추어 말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말한다.토스팅음 카리브해의 칼립소와 멘토에서 기원 되었다. 즉흥적으로 가사를 지어내어 두세가지의 적은 음만을 사용하여 노래하는 것이 특징적이며 가사를 미리 준비하기도 한다.

토스팅은 자메이카 음악 형식 (스카, 레게, 댄스홀, 덥 등)뿐만 아니라 그리웃과 같은(Griots)과 같은 다양한 아프리카 전통음악에서 사용되었다. 이것은 힙합에 영향을 주었으며 소카(Soca)리듬에서도 많이 사용된다. 노래와 토스팅의 조합을 싱재잉(Singjaying)이라고 한

다. 보다 현대적인 의미의 토스팅은 1950년대 말 카운트 마츄키(Count Machuki)에 의해 발전되었다.(Bradley, 2001), 그는 미국 라디오 방송국에서 최신 히트곡을 틀고 음악에 토스팅을 추가하였다. 내용은 주로 코미디, 성가등이었다.

자메이카 엔지니어 킹 더비(King Tubby)는 보컬이 없는 리딤 트랙에 에코와 딜레이 같은 음향 효과를 사용하여 토스팅을 하였다.(Acland, 2007).1960년대 후반은 폭력적인 가사를 사용한 가수 유로이 (U-Roy)와 레게 디제이 이자 프로듀서인 데니스 알카 포네(Dennis Alcapone)의 전성기였다.유로이 영향을 받아 아이로이(I-Roy)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였던 사무엘 레이드(Roy Samuel Reid)와 딜링거(Dillingger)는 보다 익살스러운 가사를 사용하였다.

1970년대에는 빅 유스(Big Youth)와 트리니티(Trinity)가 인기있는 토스팅 디제이였다. 1980년대에는 최초의 디제이 듀오 미시간 앤드 스마일(Michigan & Smiley)과 영국에서 큰 인기를 얻은 파토 밴튼(Pato Banton)은 정치 풍자적인 가사의 토스팅을 구사하였다.(Rhapsody,com, 2006) 토스팅은 정글 음악과 영국의 게러지(Garage) 같은 다양한 종류의 댄스 음악에 영향을 미쳤으며 힙합의 탄생에 큰 역할을 하였다.

2.5.2 파트와(Patois)

파트와는 영국과 서아프리카에 영향을 받은 자메이카 크레올의 언어이다. 자메이카 파트와어는 레게와 댄스홀 같은 자메이카 음악에 많이 사용되며 독특한 발음에 이해 그들만의 색깔을 가지게 된다. 특히 댄스홀이나 레게의 토스팅이나 힙합의 랩에서 많이 나타나며 레게음악의 보급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다. 자메이카에서는 영어가 공용어이지만, 영어만을 쓰는 화자는 소수이며 또 다른 언어인 크레올어가 수세기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 이 언어는 아직 공식적인 명칭도 없는 언어이며 자메이카어(Jamaican Patwa 혹은 Patois)등으로 불려지고 있으며, 주로 구어로 사용되고 있다.(김 경희, 2005), 자메이카의 발음과 어휘는 영어의 스펠링과 파생어를 많이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영어와 크게 다르다.

[표1]크리닉스의 Likes의 파트와어와 영어해석 차이점

파트와어 가사	영어해석
[Intro]	[Intro]
Ah nuh everybody ah guh like wi	Not Everyone is going to like us
Still wi Irie	Still, we're ok
Cah mi nuh luv likes	Because I don't love likes
Inna dancehall style	In dancehall style
Ah nuh everybody ah guh like wi	Not everyone is going to like us
Still wi Irie	Still. we're Ok
Cah mi nuh luv likes	Because I don't love likes
Seh every time mi write	Every time I write
[Chorus]	[Chorus]
Mi dweet fi di luv mi nuh dweet fi di likes	I do it for the love I don't do it for the likes
Dweet fi di luv mi nuh dweet fi di likes	Do it for the love I don't do it for the likes
Mek dem know, success don't come over night	Let them know, success don't come over night
Mek dem know substance over hype	Let them know, substance over hype
Dweet fi di luv mi nuh dweet fi di likes	Do it for the love I don't do it for the likes

3.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자메이카 음악을 스카에서부터 발전한 락스테디, 레게, 댄스홀까지 분류하고 리듬적, 선율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자메이카 음악을 구성하는 가장 큰 요소는 음악의 3 요소 중 리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메이카 음악은 캐리비안 전통음악인 멘토와 칼립소를 바탕으로 서양 대중음악이 결합되어 만들어졌다. 멘토와 칼립소는 리듬 위주의 전통 음악이었으며 서양 대중음악의 화성과 선율이 자메이카 음악의 탄생에 큰 역할을 하였다. 락스테디와 레게, 댄스홀의 발전은 리듬의 변화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덥과 댄스홀은 전자 악기의 발전에 큰 영향을 받았다 .자메이카 음악은 영국의 대중음악 시장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더 나아가 세계 음악시장 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대중 음악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댄스홀 장르와 토스팅 기법은 힙합의 탄생에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한국의 젊은 뮤지션들은 국악과 스카. 레게를 접목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자메이카 음악이 한국화 되어 재창작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의 대중음악의 다양화에 기여하여 전 세계 음악 시장에 한국 대중음악이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연구를 하였다.

참고문헌

[1] All music 2007
[2] Vincent, 2008
[3] 김 경희 2005
[4] Acland, 2007
[5] Rhapsody,2006